

두바이월드 채무재조정 관련 진행상황

□ 두바이 월드

- 두바이 월드는 3월 25일 5년 만기채권과 8년 만기채권 발행을 통한 142억 달러 상환* 계획 발표
 - 채권발행 이자율 수준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, 해당기간 LIBOR 수준으로 추정됨
- 두바이 금융지원기금(DFSF)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면 현재 채무 규모는 142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힘.

□ 두바이 정부

- 두바이 정부는 두바이월드에 95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.
- 95억 달러 중 57억 달러는 두바이 정부가 지난해 UAE 아부다비 정부로부터 빌린 200억 달러 중에서 충당하고, 나머지는 두바이 자체 재원을 통해 지원 예정

□ 채권단

- 두바이월드의 이번 채무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조만간 밝힐 것으로 알려짐
- 채권기관 : 전세계 97개 금융기관

- 주요 채권기관(비공식 협력위원회) : HSBC, RBS, Lloyds, SC, TM UFJ, Emirates NBD, ADCB
- RBS 20억 달러, Lloyds 10억 달러, HSBC 10억 달러, SC 10억 달러 수준으로 영국계 4개 은행에서 50억 달러의 채권 규모 추산

□ 시장 반응

- 기존에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 채무탕감 대신, 만기 연장을 통한 전액상환 방침이 알려지자 3.25일 두바이 종합주가 지수(DFM)가 전날보다 68.89 포인트(+3.88%) 급등하는 등 시장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
- 현재로서는 채권단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최종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
- 만일, 채권단이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두바이월드는 파산하게 되고 파산을 다루기 위한 파산 법정 구성 예정
- * 두바이 정부의 부채 규모 : 1,080억 달러 수준 추정 (두바이 GDP의 140% 수준)

<두바이 사무소 제공>